

年内 「에너지가격 예시제」 도입 추진 최소 5년단위로 가격 미리 고시

정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도입, 연도별로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예시하기로 했다.

또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원천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원천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제조한 업체에는 연비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지난 5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상 최소 5년단위로 연도별로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예시토록 했다.

통산부는 이를 통해 2000년까지 국내 에너지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조정해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

하고, 가격조정으로 조성되는 추가재원은 에너지절약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 이르면 올해부터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효율기기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특히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연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합발전시스템 국내 첫 시험가동 맑은날 태양광, 흐린날 풍력 이용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발전시스템이 상반기중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최근 제주 월령 신에너지시범 단지에 복합발전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최종 점검이 끝나는대로 첫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합발전시스템은 햇빛이 짙은 날에는 태양광

을, 밤이나 흐린 날에는 풍력을 주로 이용해 발전함으로써 쉬지 않고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국내 섬지역의 기상은 겨울이나 흐린 날에는 바람이 세고 맑은 날엔 상대적으로 바람이 잦아들어 이 발전시스템이 크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설비는 태양광 10kW, 풍력 4kW급

으로 3~4가구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시험용이다.

이번의 시험운전 성과는 장치대용량 복합발전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소측은 기술개발과 시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00년대 초반 수 MW급의 대규모 복합발전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비축기지 증설계획

내년부터 6년간 35만t 저장규모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앞으로 6년동안 35만t 규모의 비축기지를 증설키로 했다.

내년부터 2003년까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별 회계의 자금을 이용, 프로판 25만t, 부탄 10만t을 각각 저장할수 있는 제3차 LPG 정부비축시설을 건설, 비축규모를 71만t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통산부는 LPG 정부비축기지 추가건설을 위해 내년에 7억원을 들여 석유개발공사를

통해 시설입지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 99년부터 매년 3~4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LPG의 수요가 96년 5백76만1천t에서 오는 2000년에는 6백42만3천t, 2010년에는 9백44만8천t으로 꾸준히 증가, 오는 2005년부터는 정부 비축수준이 목표인 30일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연료로 사용되는

LPG는 계절별 수요격차가 심해 겨울철 정부 비축일수는 목표의 절반인 15일분에 불과하고 대중동 수입 의존도도 작년의 경우 97%로 석유의 78%보다 훨씬 높아 수급 안정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산부는 당초 LPG 정부 비축목표를 석유비축처럼 60일분으로 정했다가 투자 우선순위 문제로 30일분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번 3차 비축기지 증설을 계기로 다시 60일분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1~4월중 국내석유소비 2억6천3백만배럴

전년도 同期對比 0.4% 감소

급년들어 지난 4월말까지 국내 석유소비량은 총2억6천3백30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96년 1~4월)의 2억6천4백만배럴보다 오히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석유제품의 소비감소는 산업부문에서의 경기둔화, 수송부문의 고유가, 에너지소비 절약정책에 따른 휘발유 소비감소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경유소비 감소, 가정·상업부문에서의 도시가스보급

으로 인한 소비둔화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산업부는 분석했다.

부문별 소비실적을 보면 산업부문이 전업종에서 정기보수 및 산업경기 부진으로 산업용 연료유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2.9%증가 하는데 그친 것을 제외한 수송, 가정·상업부문 등 전부문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소비량이 감소했다.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1.0%

증가한 것을 비롯 등유 3.1% 벵커C油 3.3%등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으며, 경유는 오히려 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精油社들에 의한 석유제품 수출은 석유정제시설 증설로 인한 생산물량이 확대되었으나, 국내 석유소비 둔화에 따라 이 기간중 총 7천5백30만 배럴을 수출, 전년동기의 4천4백만배럴보다 무려 71.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심 2백m급 자율이동 무임잠수정 개발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 크게 기여

깊은 바다 넓은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자율이동 무임잠수정(AUV)이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해양기술연구부 洪錫原박사팀은 지난 94년부터 총 1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추진해온 수심 2백m급 해양탐사용 AUV의 상세설계 및 요소기기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조립작업에 돌입했다.

연구팀은 8월까지 조립작업을 마치고 수조와 대형호에서의 사전시험을 거쳐 올해중 실험역 탐사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AUV는 길이 2.8m, 폭 1.1m, 높이 0.4m 규모이다.

2개의 프로펠러를 추진체로 해 바닷속을 시속 3노트의 속

도로 운항할 수 있다.

알루미늄 동체는 수심 2백m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12V 축전지를 직렬(48V)로 연결해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운항시간은 조명등 사용여부에 따라 최대 10시간 정도이며 직선 거리로 10km가량을 활동무대로 삼을 수 있다.

바다위에 떠있는 모선과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관성항법장치(INS)와 초음파 음향신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항법시스템을 채택, 정밀위치 측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 AUV는 특히 수중음향모뎀(어쿠스틱모뎀)을 통해 모선과 1~10분 간격으로 데이터통신(현재 3백bps)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모선에서 실시간으로 작업명령을 하달하고 AUV가 획득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얻은 화상정보 역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AUV는 보통 운항정보나 탐사작업내용 등을 미리 프로그램해 진수하기 때문에 회수되기 전까지는 해양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연구팀은 이 AUV가 상용화될 경우 복잡한 해양구조물의 수중하부구조 검사는 물론 해저광케이블, 해저지형, 해류에 따라 형성되는 수온전선 등 각종 해양환경 요소의 효율적 탐사가 가능해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韓國電力公社 「에디슨상 大賞」 수상

세계 최고권위 아시아지역 최초

전력회사에 수여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디슨상 大賞」을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수상하게 되었다.

지난 6월 3일 세계전력 사업자협회인 에디슨전기협회(EEI)로부터 올해 에디슨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고 6월 11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시상식에 李宗勳사장이 참석했다. 에디슨상은 세계 2백46개 전력회사의 모임인

미국 에디슨전기협회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아시아지역 전력회사 가운데 大賞을 수상하는 기업은 이번 韓電이 처음이다.

에디슨협회가 밝힌 韓電의 공적사항은 획기적 기술혁신, 원전기술자립 및 안전운영, 과감한 협력업체 지원, 해외사업 진출을 비롯한 사업다각화등 네 가지이다.

이어도에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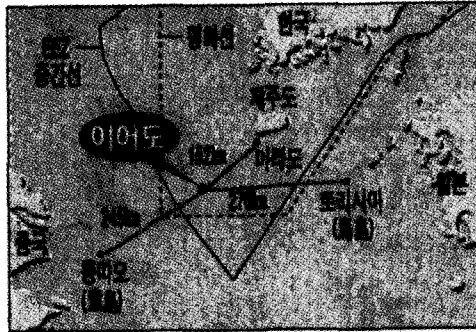
2000년까지 기상·환경장비 완비

전설의 섬 이어도에 종합 해양 과학기지가 오는 2000년까지 세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백52km 떨어져 있는 이어도에 세워질 과학기지의 기본 설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해양연구소(소장 박炳權)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설계에 따르면 과학기지는 자켓타워 형태의

2백10평 규모로 이어도 정상에서 서북서쪽으로 약1백50m



떨어진 수심 20m지점에 건설되며 관측실험실, 침실, 발전실, 헬기 이착륙장, 선박계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7인이 14일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시설도 완비된다.

또 각종 기상, 해양, 환경 관측장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원은 태양열, 풍차발전, 디젤발전 등으로 자체 공급체계를 갖추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지가 완공되면 종합해양 기상관측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大氣」WHO권고 수준 강화

주행稅 도입·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정부는 2001년까지 대기보전을 위해 주행세를 도입하고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수질기준을 현재 14개 항목에서 28개로 늘려 선진국 환경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01년까지 1백31개 사업에 모두 32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차 환경개선 중기 종합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배출이 가능한 오염부하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울산공단 등에 대해서는 아황산가스 총량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가 조례를 제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을 현행 연평균 0.03ppm에서 0.015~0.023ppm, 총먼지는 1백50 $\mu\text{g}/\text{m}^3$ 에서 60~90 $\mu\text{g}/\text{m}^3$, 미세먼지는 일일평균 1백50 $\mu\text{g}/\text{m}^3$ 에서 70 $\mu\text{g}/\text{m}^3$ 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상수원등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45%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65%로 높이고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도 45개에서 85개로 늘리기로 했다.

3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피크부하 전력예비율 확보 크게 기여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전등기구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남은 전력을 한전의 계통선을 이용해 역송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통산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삼성전자종합연구소 李惟眞 박사팀에 의해 3kW 용량의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

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7억8천9백여만원(정부지원금 3억6천5백만원)을 투입, 개발함으로써 연간 4MWH의 전력절감에 따른 전력요금(26만2천원) 절감과 함께 여름철 피크 부하 저감에 따른 전력예비율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무공해 태양빛을 이용해 발전함으로써 화력발전소에 의한 전력사용의 경우와 비교해 연간 9백48ℓ의 석유에너지의 절약과 함께 CO2 2천9백 25kg

SOx 25kg, NOx 18kg 등의 환경오염 유발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이다.

한편 李박사는 「오는 2000년까지 이 시스템의 대량생산 체제를 갖춰 가전제품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시스템의 효율향상, 제품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 1kW미만의 소형 계통연계형 인버터 개발등 기술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₂ 재활용 油化원료 사용 기술개발

화학연구, 촉매반응에서 올레핀 등 추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바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소 화학기술연구단 이규완 박사팀은 환경부 및 과학기술처의 선도기술개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6억4천여만원을 들여 이산화탄소를 산업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기술 및 관련장치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이 기술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지에서 대량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1대3의 비율로 섞어 촉매반응시키는 것으로 최종산물로 공해물질이 적게 포함된 가솔린유분, 디젤유분, 올레핀 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쓸 수 있는 고가의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의 불포화 화합물)함량이

평균 80%에 달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박사팀은 앞으로 5년간 이 기술의 상용화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파일럿플랜트는 촉매반응에 높은 열이 필요 없으며, 현재 40%선인 것으로 확인된 전환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돼 상용화될 경우 환경보호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양 최대의 태백석탄박물관 개관 탄광지역 역사 새롭게 재조명

동양최대의 박물관인 「태백석탄박물관」이 지난 5월 27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94년 6월 착공이래 3년여의 공사 끝에 문을 연 이날 개관식에는 최각규 도지사, 박우병 국회의원, 유창무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심의관, 김진모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 이사장, 시·도 유관기관 단체장 및 일반인 등 총 2천8백여명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석탄박물관은 태백시가 국비 14,408백만원, 지방비 822백만원 등 총 15,230백만원을 들여 태백산도립공원 소도동 166번지 부지 7천2백60평 위에 건립했다.

옥내·외전시장을 포함하여 5천평 규모로 건립한 「태백석탄박물관」은 총 7개의 전시실과 지하갱도, 그리고 2개의 야외전시장(2천3백여평)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 관람거리는 1,337m로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되지만 아가자기한 전시구성으로 시간 가는줄 모른다.

박물관 내·외전시품으로 기증받거나 유상구입한 공룡

알 화석 등을 비롯하여 희귀품은 6,127점에 이르며, 종류별로는 화석 476점, 암석 67점, 광물 493점, 기계·장비

유형과 원인, '광산정책관'인 제5전시실은 국내 에너지 정책 변천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류 1,734점, 문서류 2,192점, 생활용품 972점, 기타 193점 등으로 분류된다.

제1전시실은 '지질 전시관'으로 암석·광물·화석을 생성별, 시대별로 전시하여 지질의 구조와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석탄의 생성 및 발견관'으로 최초 석탄 발견지 일대의 전경사진, '석탄의 채굴 이용관'인 제3전시관에선 시대별로 채탄장비의 변천모습을 보여준다.

제4전시실은 '광산 안전관'으로 국내 주요 광산사고의

제6전시실은 '탄광생활관'으로 탄광촌 특유의 주거문화, '태백지역관'인 제7전시관은 태백산 철쭉등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소개한다.

지하전시실은 채탄과정을 재현하는 실제상황과 가깝게 만든 모형으로 갱도붕락 사고시 위기감이 연출된 체험 갱도로 태백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이다.

국내 최대의 석탄생산지역에 건립한 「태백석탄박물관」은 지난날 '왕성했던 탄광지역의 역사가 재현되리라'는 주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유럽 풍력발전사업 세계최대 76만kW

토멘 1,500억엔 투입 2003년 완공

토멘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유럽 3개국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의 건설, 운영에 나섰다.

총사업비는 1,500억엔이상으로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시킨다. 발전총량은 합계 약 76만kW로 풍력발전으로서는 세계 최대이다.

풍력발전플랜트를 스페인의 갈리시아(Galicia)주에 619기,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에 361기, 포르투갈 빌라도비스포(Vila do Bispo)에 20기 건설한다. 발전량은 각각 525천kW, 230천kW, 10천kW로 동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시설(165천kW)을 크게 웃돈다.

총 사업비는 스페인이 1,162억, 이탈리아가 365억, 포르투갈이 15억엔이다. 이중 자기자금으로 25%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로 구미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배이스로 용자를 받는다.

토멘은 발전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전력을 전력회사에 도매하는 IPP(독립발전사업자)를 3개국에 설립하여 전력판매 수입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IPP는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현지기업과 함께 토멘의

50% 출자로 설립하고, 포르투갈은 전액출자로 했다.

발전시설 완성후에 현지의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마쳤다.

풍력발전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구미 각국에서 사업세의 감면조치나 보조금의 지급, 전력회사의 전력구매 의무 등 IPP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예가 늘고 있다. 이번에도 사업세의 감면조치등을 적용한다.

환경문제의 심각화가 배경이 되어 클린에너지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자료제공 : 김태문고문/유공)

캐나다 대서양 연안 유전개발로 각광

개발참여 기업 대규모 생산시설 설치

캐나다의 동부 대서양 연안 지역이 북아메리카의 새로운 석유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석유메이저인 Mobil, Chevron등 6개사가 공동으로 12월에 뉴펀드랜드섬 동쪽 하이베르니아 유전조업에 들어가며, 생산목표는 13만5천 b/d이다.

인접 지역에서는 생산량 10

만 b/d규모의 데라노바 유전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원유생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작년 부터 멕시코만에서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동부 연안에서의 유전개발로 북미 전체 원유생산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이베르니아 유전은 뉴펀드

랜드섬에서 동북방 약30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추위로 해면이 결빙되는 지역이다. 모빌등 개발참여 기업들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 유전개발 기술의 발전과 캐나다 정부의 투자우대 정책이 개발붐을 부추기고 있다.

(자료제공 : 에너지동향/예경연)

일본정부 전력산업 개혁 확정 추진

고비용 구조개편 국제경쟁력 강화

일본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추진하는 전력산업개혁안 골격이 확정되었다.

개혁안은 발전부문의 경쟁촉진과 전력소매부문의 신규 참여 허용, 발전소 가동률 향상 등 3가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부문 경쟁촉진 방안은 화력발전소 신설에 완전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전력회사의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소매부문에서는 일반기업에

제도 전력의 소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를 채택하였다.

발전소 가동률향상 방안으로 가동률 향상을 위한 10년간 수칙목표 설정, 축열냉방시스템의 설치 의무화, 주야간 전기요금 격차확대 등이다.

이번 전력개혁안은 전력산업 고비용 구조를 개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경제구조개혁의 핵심이다.

경제구조개혁 행동계획안에 따르면 '97년중에 발전소 가

동률향상을 위한 수칙목표를 설정하고, '98년 초반에 가격인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98년 하반기까지 화력발전의 경쟁입찰 방법을 확정하고, 2000년에 또다시 전력가격을 추가 인하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에는 현재 유럽이나 미국보다 약 20%이상 비싼 일본의 전력가격을 구미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이다.

<자료제공 : 에너지동향/예경연>

日·中합작 석탄액화사업 2000년 착공

신닛데쓰 등 18개사 사업 참여

일본, 중국 양국정부는 석탄을 석유로 전환하는 석탄액화의 합작플랜트를 중국 흑룡강성 의란(依蘭)탄광에서 2000년에 착공할 것에 기본 합의하였다. 일본에서는 신닛데쓰(新日鐵), 이데미쓰고산(出光興産), 닛쇼이와이(日商岩井) 등 18개사가 참가하며 10월부터 사업화 조사에 들어간다.

중국은 일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수급을 개선하려 한다. 일본측은 사업을 통하여

석유수입선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석탄연소에 의한 산성비등 환경피해를 막는 일과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북경에서 열린 일·중(日·中)고위사무협약에서 일본의 마키노(牧野) 통산삼무차관과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의 섭청(葉靑)부주임이 기본 합의하고 5월중순에 협정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플랜트건설지로는 액화효율이 좋은 석탄을 산출하고 장래의 경제성장성도 높은 중국 동

북지방의 의란탄광을 선정했다.

합작사업에는 일본측에서 신닛데쓰, 이데미쓰, 닛쇼이와이 외에 미쓰이석탄액화, 고베세이코쇼(神戸製鐵所) 등 18개사가 참가하고, 중국측기업은 지금부터 선정을 서두른다. 석탄에서 일단 가스로 바꾸지 않고 직접 석유를 만드는 상업용 플랜트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액화사업의 규모는 연간 약 182만5천톤 예정으로 석유환산 730만배럴에 해당한다.

<자료제공 : 김태문고문/유공>